

日帝時代의 鄉校財産과 公共圖書館에 관한 研究

金 南 碩*

〈目 次〉

- | | |
|-------------------------|----------------------------|
| I. 序 論 | 3. 豫算現況 |
| II.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立現況 | IV. 鄉校財産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別 活動現況 |
| 1. 鄉校財産과 圖書館設立過程 | 1. 蔚山簡易圖書館 |
| 2.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置現況 | 2. 開城圖書館 |
| III.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 運營 現況 | 3. 咸興圖書館 |
| 1. 藏書現況 | V. 結 論 |
| 2. 利用現況 | |

I. 序 論

日帝의 강점에 따른 朝鮮人의 반일감정은 3·1운동이라는 民族的 저항 운동으로 폭발하였고, 이로 인해서 日帝는 武力에 의한 彈壓政策을 전환시켜 文化政策이라는 명목으로 朝鮮人을 회유하기 위한 식민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社會教育에서 사용한 이들의 회유정책은 朝鮮民을 순화하기 위해 日本化를 위한 教化政策으로 펼쳐 나갔다. 日帝는 社會教化를 위해 기존의 教育施設인 學校를 개방하고, 敎員들을 敎化員으로 이용하여 강연회, 강화회, 영사회 등을 통해 地域의 住民을 敎化하였으며, 또한 文化的인 활동을 통한 敎化的 필요성을 인식하고 全國各地에 敎化機關으로 圖書館을 설치하여 日本語普及을 위한 講習과 日本語로 된 資料를 수집하여 圖書를 통한 植民地政策을 펼쳐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日帝36年 동

* 啓明大學校 圖書館學科 敎授

2 圖書館學論集

안에 二百數十個의 圖書館活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行政機關에 의해 설립된 公立圖書館을 제외한 私立 圖書館活動의 대다수가 鄉校財産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다.

본래 鄉校는 朝鮮人의 鄉里의 教育機關으로 全國에 산재해 있으면서 많은 學校田을 확보하여 그 收入의 一部를 教育의 운영기금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당시는 이를 중심으로 活動하고 있는 儒林들의 세력이 地域住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地域의 教化를 위한 資金確保에 鄉校財産을 끌어들이기 위해 수차에 걸쳐 鄉校財産管理法을 개정하여 향사외에는 教化를 위해서만 활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日帝는 地方官吏가 教化施設을 설치하되, 鄉校財産과 儒林의 참여를 유도하므로써 圖書館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鄉校財産으로 운영케 하였고, 설치과정에서 부터 儒林을 동참하게 할 수 있었다.

本 研究는 日帝時 教化機關으로써 설립한 圖書館과 鄉校財産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圖書館活動의 現況을 教化的인 차원에서 分析해 봄으로써 植民地政策의 일환인 朝鮮人의 日本化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研究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그 目的을 설정하였다.

첫째, 鄉校에 대한 日帝의 政策變化와 教育施設을 위한 圖書館의 設立過程을 규명하고,

둘째, 鄉校財産에 의해 설립된 圖書館들의 活動에 대한 現況을 분석하고,

셋째, 보다 구체적으로 대표되는 圖書館의 실제활동을 알아봄으로써 日帝時 鄉校財産이 公共圖書館活動에 미친 영향과 이를 통한 植民地 政策遂行의 당면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立 現況

1. 鄉校財産과 圖書館設立過程

鄉校는 이름 그대로 地方에 있는 學校라는 의미로 鄉學 또는 鄉校라고 하였다. 鄉校는 高麗時代부터 각지에 보급된 地方의 教育機關¹⁾으로 朝鮮 최초의 鄉校는 忠烈王때 江陵按廉使 金承印이 花浮山 碩滴岩 아래 文廟를 세운 것이 처음이라 한다.²⁾ 鄉校는 成均館과 같이 先聖仙賢을 祭祀하는 임무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地方의 儒生들을 모아 講學하는 教育機能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³⁾ 특히 國家의 過去制度는 鄉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어 응시자들의 教育機關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高宗31年(1894) 甲午改革으로 過去制度가 폐지되고 國家의 教育制度와 教育機關의 정비로 鄉校는 이름만이 남아 文廟석존만을 향사할 뿐이었다.

日帝는 朝鮮人이 儒學을 존중하고 儒敎思想에 젖어 日帝下에서도 전지역에 걸친 민간주도의 큰 세력임을 인식하고, 文廟를 중심으로 하는 각종 敎化事業을 장려하였다.⁴⁾ 그러나 日帝는 鄉校가 文廟亭禮만을 하고 修學機關으로서의 敎化事業은 소기의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 이를 敎化에 이용키 위해 수차에 걸쳐 향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1910년4월 學部令 第2號에 의해 鄉校財産 수입⁵⁾은 舊習에 의해 孔子文廟의 경비로 충당하는 것 외 대부분은 公立普通學校의 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했다.⁶⁾

1) 高麗史, 世家 成宗 6年 秋8月條.

2) 增補文獻備考, 卷209 學校號 8.

3) 李鐘春, “忠北地方 鄉校書院의 史的考察,” 논문집(청주교대), 第1輯(1984). p.265 (263-296).

4) 韓國의 社會敎育. 서울: 中央敎育研究所, 1966. p. 52.

5) 舊儒林田의 收益에 기초한 財源으로 하였다.

6) 權恩環, 韓國圖書館近代化 史的考察. 東京大學校, 1979. p. 95.

그러다가 습邦 다음해인 1911년10월에 발한 朝鮮總督府令에서는 成均館을 經學院으로 개칭하고,⁷⁾ 文廟만을 봉안하였으며 지방에는 文廟職員을 名譽職으로 두고 府尹郡守의 감독하에 文廟를 지키고 庶務에 종사케 했다.⁸⁾ 學田, 地方儒林의 殘財, 기타 附屬財產 등의 鄉校財產은 舊 韓國政府의 學部所管으로 鄉校財產管理 規定을 정하고 府尹郡守로 하여금 정리케 하였으며, 그 收入은 府, 郡內의 公立學校 또는 지정하는 學校의 經費와 文廟亨禮費로 충당케 하여⁹⁾ 문묘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후 다시 鄉校財產管理 規定을 폐지하고,¹⁰⁾ 1920년6월29일 總督府令 第91號의 第4條에는 “鄉校財產으로부터 생기는 收入은 이것을 文廟의 費用 기타 敎化的 비용으로 한다”라고 정하였다.¹¹⁾ 개정되는 鄉校財產管理規則에는 儒林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文廟의 향기와 행사비 및 社會敎化事業의 施設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¹²⁾ 財產에 대한 그 管理는 郡守가 하도록 하였다.¹³⁾ 이렇게 됨으로서 圖書館은 社會敎化事業施設의 하나로서 鄉校財產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鄉校財產이 府尹에 일임되어 敎化事業費로 충당될 수 있게 됨에 따라 1921년부터 각 지방에 鄉校財產을 豫算으로 한 公共圖書館이 주로 地方行政機關의 長인 郡守들에 의해서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해서 日帝時 私立圖書館의 대부분이 鄉校財產으로 설치되었다¹⁴⁾고 한다.

7) 1911년 6월15일 朝鮮總督府令 제3호 經學院規定.

8) 施政二十五年史, p. 178.

9) 이수찬, “조선왕조시대의 대향교정책: 특히 경상도내 향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구 논문집(경남), 제4집(), p. 191(183-192).

10) 每日申報. 1920.6.28. 1면.

11) 朝鮮總督府官報, 第2365號(大正9年6月29日). pp. 327-328. “鄉校財產管理規則”(朝鮮總督府令, 第91號).

12) 施政二十五年史, p. 517-518: 東亞日報 1922.4.21. 1면. 사설.

13) 每日申報 1920.6.28. 1면 사설.

14) 櫻井 義之, “總裁前 朝鮮 圖書館事情,” 圖書館雜誌, Vol. 59, No. 8(1965. 8). p. 328.

設立過程에 나타난 趣旨를 보면

“정주군민으로 독서열을 고조시키며 유망하는 청년을 지도키 위하여 정주군수는 백방으로 연구중 향교재산으로 도서관을 건축하고 교화사업에 공헌키로……”¹⁵⁾

“……특히 군수 孫永穆씨의 영단으로 만위를 배하고 차(향교재산 필자주)를 이용하야 사회교화기관으로 민중문화시설의 최적절한 군립도서관을 계획함은 실로 타 지방인사의 흠복하는 바이더라.”¹⁶⁾

“개성군향교재산은 개성군청에서 관리하여 오든 바 매년에는 리방교화비로 약간의 금전을 지출할 뿐으로 이러타 할만한 사업이 업섯든 바 금년도에는 예산을 일신하야 도서관과 강습소를 설치하기로 되얏는데……”¹⁷⁾

“……금반 개성군에서는 향교재산을 사회교화사업으로 육천여원의 금액을 투하야……”¹⁸⁾

“강원도 삼척군은……풍습을 개량하여 청년들의 장래를 선도코자 목적하고 군향교재산운영으로 간이도서관을 군청내에 설립하고 시대에 필요한 서적과 잡지 신문 등을 일반인사에게 열람장려한 결과 그 성적이 매우 양호하야 간다더라”¹⁹⁾

“양구군에서는 아직까지 민중교육기관이 없음으로 일반은 차를 일대 유감으로 생각하든바 양구유림에서는 도서관설립계획으로 유림간의 출연과 향교재산의 일부로 향교문투를 수리하고……일반인사의 많은 원조가 있기를 바라다더라.”²⁰⁾

上記한 趣旨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帝는 教化施設의 설치를 위해 鄕校財産을 십분 이용하여 鄕校財産權을 가진 지방관리들로 하여금 교화시설 확장에 힘쓰게 하였다. 이때에 교화사업으로 투입된 예산 중 많은 부분이

15) 每日申報 1932.8.4. 3면. “定州圖書館創設: 鄕校財産을 利用”

16) 東亞日報 1922.10.12. 4면. “蔚山圖書館”

17) 東亞日報 1924.2.5. 2면. “開城鄕校財産으로 圖書館과 講習經營”

18) 朝鮮日報 1924.11.4. 3면. “三陟에 簡易圖書館”

19) 每日申報 1925.8.23. 5면. “楊口郡 儒林圖書館準備”

20) 朝鮮日報 1929.4.28. 4면.

圖書館을 통한 교화활동에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 儒林에서는 한동안 상당한 반대활동²¹⁾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유림이 이들 圖書館設置를 지방관리와 함께 주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儒林에서 설립하였거나 관리된 圖書館들의 활동에서 지방관청이 관계되어 있는 사실을 다음 기사들을 통해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楊口郡에서……圖書館設立計劃으로 儒林間의 出演과 鄕校財産의 一部로 鄕校門樓를 修理하고……”²²⁾

“황해도 봉산군 유림회에서는……본군 군정회의실에서 대표 오십여인이 집합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간이도서관을 설치하고……”²³⁾

“金堤鄕校에서는……同校內萬化樓에서 金堤文廟圖書館閱覽開始式을 金郡守의 修理工事經過說明이 잇슨 후 來賓講話로 團全警察署長과 橋本道評議員과……講화가 잇슨 후 同七時半에 閉會하였다.”²⁴⁾

이렇게 이들은 朝鮮人의 教育과 先賢들의 亨禮를 위한 財産으로, 日本植民地 政策의 실현을 위한 教化機關인 圖書館 活動에 사용함으로써 民族資本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多目的的인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대해 儒林間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는데 일부에서는 抵抗도 있었으나 역부족으로 이를 역행할 수 없었으며 終局에는 이들의 政策에 順應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21) 東亞日報 1922.7.12. 1면 사설. “유림의 신교육에 대한 반대이유로 거하는 것을 지방보도에 의하여 관하면 신교육과 공자의 도와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 차 신교육을 공자보정에 전하는 것은 공자의 성령을 불안케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 당시 지방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2) 朝鮮日報 1929.4.28. 4면. “楊口郡儒林圖書館準備.”

23) 朝鮮日報 1925.2.5. 1면. “儒林會에서 簡易圖書館일반에 공개.”

24) 朝鮮日報 1926.8.5. 1면. “文廟圖書室金堤鄕校에.”

먼저 抵抗에 대한 記錄을 보면

“……一方向으로 普校의 經費를 充當케 하얏슴으로 一部儒林界에서난 此制度로서 先聖을 尊崇치 아니하며 儒敎를 撲滅한단 制度라 하야 甚히 其不平을 하며……”²⁵⁾

“新敎育과 儒林：儒林의 本質이 何오, 라는 제하에서

…비록 一部利害上 反對의 階級 集群이 反抗하고 抵抗하고 力爭한다 할 지라도 그 當然한 態勢를 지지 回轉치 못할 것은 智者를 待하야 比로서 知 할바이니라……吾人은 此에 對하야 一問를 發하고자 하노니 新敎育은 日本語를 敎하는 것이라 이 孔孟의 道에 違反하는 것인가 新敎育은 日本歷史를 敎하는 것이라 이 孔孟의 道에 違反하는 것인가 新敎育은 日本의 地理를 敎하는 것이라 이 孔孟의 道에 違反하는 것인가……”²⁶⁾

順應에 대한 記錄을 보면

儒林들의 新出發：18日 大野總監을 總裁로 推載라는 제하에

“실사회와는 격리되어 있던 전조선유림들은 시국의 장기화와 함께 국책에 협력하기로 하는 의미에서 지난 10월16일 전조선으로부터 300여명의 대표자가 모이어 조선유도연합회를 조직하고……유도의 진흥을 위해서 각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는 총독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원조하게 되었는데 위선 이번 이 연합회의 총재로 大野政務總監을 추대하게 되어 충감도 쾌히 승락하였음으로 오는 18일……경성제국대학 강당에서 추대식을 거행하고 전조선 30만 유림은 시국에 따라 새출발을 할 것을 기약 하리라고 한다.”²⁷⁾

이와같이 鄉校財産을 新敎育 즉 日帝의 言語, 文化, 思想 등을 전달하기 위한 敎育事業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음도 알 수 있고, 日帝末期에 저항하다 못해 儒林이 스스로 日帝政策에 동조하여 그들의 敎

25) 每日申報. 1920.6.28. 1면 사설.

26) 東亞日報. 1922.7.12. 1면 사설. “新敎育과 儒林”

27) 每日申報. 1939.11.17. 2면. “儒林들의 新出發”

化事業에 일익을 감당하기로 하였다.

2.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置 現況

鄉校財産에 의해 設立되었거나 運營되어졌던 公共圖書館의 現況을 보면 <表 1>과 같다.

(表 1)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

設立年	圖書館名	設立者	所在地	備 考
1921.10	咸興圖書館	有 志	함남함흥부	
1922. 4	洪城簡易圖書館	有 志	충북홍성군	공회당내
1923. 2	蔚山簡易圖書館	孫永穆 木阪道一	경남울산군	학교시설
1923. 8	東萊簡易圖書館	東 萊 郡	경남동래군	공부구내
1923. 9	咸安簡易圖書館	咸 安 郡	경남함안군	함안공보교내
1924. 4	寧邊郡新聞圖書閱覽所	寧 邊 郡	평북령변군	면사무소구내
1924. 4	博川郡 "	博 川 郡	평북박천군	
1924. 4	楚山郡 "	楚 山 郡	평북초산군	
1924. 4	泰川郡新聞圖書閱覽所	泰 川 郡	평북태천군	
1924. 5	鐵山郡 "	鐵 山 郡	평북철산군	
1924. 6	熙川郡 "	熙 川 郡	평북희천군	咸錫濠方
1924.10	慈城郡 "	慈 城 郡	평북자성군	
1924.10	潭陽郡圖書館	潭 陽 郡	전남담양군	
1924.11	開城府立圖書館	開 城 府	경기개성부	독립건물
1925. 2	儒林會簡易圖書館	鳳山郡儒林會	황해봉산군	
1925. 4	義州面新聞圖書閱覽所	義 州 面	평북의주군	면사무소내
1925. 5	三陟簡易圖書館	三 陟 郡	강원삼척군	군청내
1925. 6	求禮圖書館	友野利二郎 朴 鐘 燮	전남구례군	
1925. 6	咸興圖書館	咸興教育會	함남함흥군	명륜당내
1925. 6	密陽圖書館	密 陽 郡	경남밀양군	군청내
1925. 9	谷城圖書館	谷 城 郡	전남곡성군	군청회의실
1925. 9	厚昌郡新聞圖書閱覽所	厚 昌 郡	평북후창군	

設立年	圖書館名	設立者	住 所 地	備 考
1925. 9	居昌民立圖書館	지 방 유 지	경남거창군	학교구내
1925.10	靈巖郡圖書館(文庫)	靈 巖 郡	전남영암군	향교부속건물
1926. 7	山淸圖書館	山 淸 郡	경남산청군	
1926. 7	尙州圖書館	尙 州 郡	경북상주군	독립건물
1926. 8	沙里院圖書室	鳳山郡儒林會	향해봉산군	
1926. 8	金堤文廟圖書館	嘗 鄉 校 金 堤 郡 守	전북김제군	향교건물
1926. 9	南海簡易圖書館	南 海 郡	경남남해군	공보교구내
1927. 1	信川圖書館	儒林명윤희	황해신천군	독립건물
1927. 8	江陵圖書館	강릉공보	강원강릉군	독립건물
1927. 9	寧邊圖書閱覽所	령 변 군	평북령변군	개인가정
1928	御大禮紀念固城簡易圖書館	固 城 郡	경남고성군	
1928. 4	義城簡易圖書館	의성구락부	경북의성군	구락부내
1928. 6	公州圖書館	公 州 邑	충남공주군	독립건물
1929	光州圖書館	광 주 읍	전남광주군 ²⁸⁾	
1929. 3	慶山圖書館	경 산 군	경북경산군	
1929. 4	楊口郡儒林圖書館	儒 林	강원양구군	향교건물
1929. 5	讓陽圖書館	襄 陽 郡	강원양양군	군청내
1931. 4	通川郡圖書館	通 川 郡	강원통천군	보교작업실
1932.	安城圖書館	安城尋常高校	경기안성군	안성소학교구내
1932.	梁山簡易圖書館	梁 山 郡	경남양산군	
1932. 8	定州郡新聞圖書閱覽所 (定州圖書館)	定 州 郡	평북정주군	독립건물
1933.	昌城郡新聞圖書閱覽所	昌 城 郡	평북창성군	
1934.	利原郡校文庫	利 原 儒 林	함남리원군 ²⁹⁾	
1934.	宣川會館圖書閱覽所	宣 川 郡	평북선천군	선천회관
1938.	平康圖書館	平康青年團	강원평강군	
1939. 2	全州府立圖書館	全 州 府	전북전주부	

28) 東亞日報, 1929.1.15. 4면. (“光州化城町에 있는 全南儒林育英會 經營의 圖書館...”)

29) 朝鮮日報, 1935.6.6. 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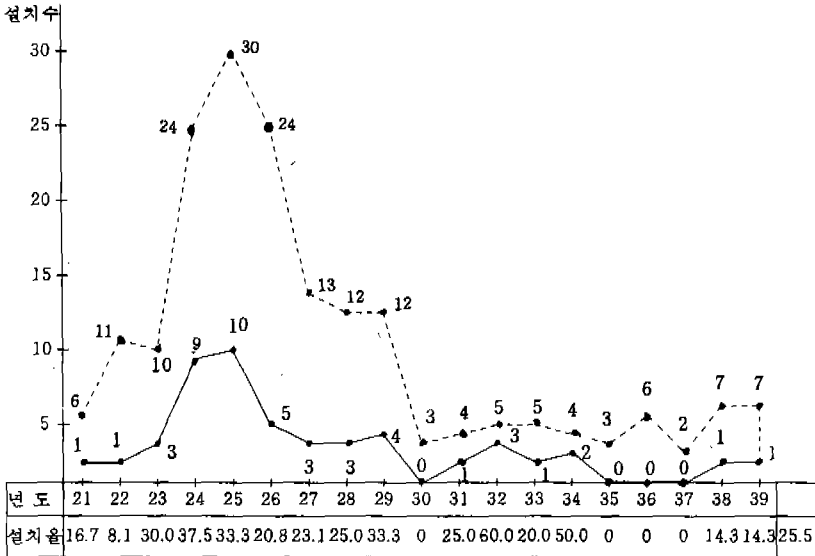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鄉校財産에 의해서 설립된 최초의 鄉校圖書館은 1921년 10월에 개관을 본 咸興圖書館이다.³⁰⁾ 1920년 鄉校財産을 향사와 교화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초기인 1921년과 1922년에 각각 1개관의 圖書館活動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지방유지들이 전면에서 나타난 圖書館 설립이었다. 그리고 1923년부터 지방군수가 중심이 되어 향교재산에 이용한 도서관설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日帝는 鄉校財産을 이용한 교화시설인 圖書館活動을 초기에는 유지들을 앞세워 조심스러이 주민의 반응을 타진한 후 1923년부터 地方郡守와 日本人, 教育機關 등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圖書館설립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것을 쉽게 단정할 수 있다.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活動은 주로 문화정치시기에 편중되어 있어 日帝 통치시기 중 가장 활발한 교화시설인 圖書館活動에 일익을 감당하였다. 咸興圖書館을 필두로 해서 1939년 全州府立圖書館을 끝으로 19년 동안에 전국에 48개관이 설립되었는데 이는 동일 기간에 설립된 總圖書館數 188개 중 25.5%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일 예산으로 설립된 가장 많은 시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獨立建物を 건축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鄉校의 施設이나 公共施設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圖書館을 통한 教化活動을 전개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많은 세력을 가진 儒林을 教化에 동참시킴으로서 구국차원의 민족계몽활동을 저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

이들 圖書館을 설립연도별로 보면 〈圖表 2〉와 같다.

〈圖表 2〉에서 보는 바와같이 1921년부터 鄉校財産에 의해 설립을 보게된 圖書館은 1924년과 1925년에 절정을 이루었는데, 1924년에는 全體 24개관의 圖書館 設立 中 9개관으로 37.5%를 차지하고, 1925년에는 10개관으로 同年 全體設立의 33.3%를 차지하였으며, 1927년 이후부터는 全體의인 圖書館의 設置率도 감소되었지만 鄉校에 의한 圖書館의 設置率도 계속 감

30) 東亞日報. 1921.10.26. 4면

〈圖表 2〉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의 年度別 設置率



----- 전체 도서관 설립수 (188개관)
 ————— 향교재산 도서관 설립수 (48개관)

소되었다. 그러나 1934년까지는 每年 명맥을 유지하면서 소수이나마 그 設立이 계속되다가 문화정치의 말기인 1935년부터 1937년에는 郷校財産에 의한 설립활동은 전무하였으며, 다시 1938년과 1939년에 각각 1개관씩의 설립이 있었으나 더이상 설립이 계속되지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보면 향교재산에 의한 도서관활동은 1921년부터 1939년까지 19년간의 활동이지만 실질적으로 設立활동이 전개된 주된 시기는 1934년까지로 문화정치시기 조선인의 구국차원의 도서관운동과 대치되는 14년간의 짧은 기간의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年度別 設立分布를 행정단위에 따라 분석하면(〈表 1〉참조), 1924년의 경우는 平安北道에 9개관 중 7개관이 設立되었고, 1923년에는 3개관이 모두 慶尙南道에 設立되었다. 이렇게 지역과 통치시기에 따라 圖書館의 設

立活動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咸境北道와 平安南道 등의 지역에서는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置가 하나도 없는 것은 郷校財産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道나 郡單位行政機關長의 教化政策에 대한 반영의 차이라는 것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郷校財産管理權이 부윤에게 전적으로 일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郷校財産을 이용한 圖書館設置는 전국적으로 일관된 政策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府尹에게 맡겨진 郷校財産의 용도가 亨禮와 教化事業이었기 때문에 豫算을 이용할 수 가장 적합한 施設이 圖書館이었으므로 이를 적절히 政策으로 반영하여 教化사업을 펼쳐나간 결과라 할 수 있다.

(表 3)은 行政單位에 따른 설립자별 현황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表 3) 道單位 設立者分析

道 別	郡 守	日本人	地方有志	教育機關	儒 林	其 他	計	%
京 畿	1			1			2	4.2
忠 北			1				1	2.1
忠 南	1						1	2.1
全 北	1				1		2	4.2
全 南	4	1					5	10.4
慶 北	2					1	3	6.3
慶 南	7	1	1				9	18.8
黃 海					3		3	6.3
平 北	13						13	27.1
平 南							0	0.0
江 原	3			1	1	1	6	12.5
咸 北							0	0.0
咸 南			1	1	1		3	6.3
計	32	2	3	3	6	2	48	100.0
%	66.7	4.2	6.3	6.3	12.5	4.2	100.0	

道別 設立狀況을 보면 平安北道 13개 관으로 全體의 27.1%, 慶尙南道 9개 관으로 全體의 18.8%, 江原道 6개 관으로 12.5%, 全羅南道 5개 관으로 10.4%의 設置率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7개 도는 그 設置率이 비교적 저조한 실정이며, 平安南道와 咸境北道는 鄉校에 의한 圖書館의 設立運動이 하나도 없었다. 鄉校에 의한 圖書館 設立이 平安北道와 慶尙南道에 편중되어 設置率이 높은 반면, 하나도 없는 道가 있듯이 道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鄉校財産을 관리하는 地方行政家의 教化施設 확장에 따른 의지와 유림들의 호응에 대한 차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를 設立者別로 보면 地方의 行政官吏인 郡守에 의해서 설립된 圖書館(여기에는 府立으로 설립한 圖書館포함)이 32개 관으로 全體의 66.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儒林에 의한 것이 6개 관 12.5%, 教育機關과 지방유지에 의한 것이 각각 3개 관 6.3%, 個人에 의한 것이 2개 관으로 4.2% 순이다. 이를 다시 관주도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전체 48개 관 중 郡廳과 教育機關에서 설립한 것이 45개 관으로 72.9%를 상회하고, 교화적인 측면에서 日本人 개인들이 설립한 2개 관을 포함하면 37개 관으로 77.1%가 官署나 日本人들에 의해 주도된 圖書館시설에 鄉校財産을 투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당시 鄉校에 의한 圖書館의 設立은 鄉校財産을 관리하고 있는 郡守가 주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圖書館을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設立된 圖書館의 運營도 함께 하고 있었으며, 郡守가 設立者가 아닌 경우에도 財産을 관리하고 있는 郡守의 허락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때 鄉校財産에 의해 설립된 圖書館들은 비록 그것이 鄉校나 儒林, 그리고 地方有志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日帝의 교화를 위한 政策을 무시한 朝鮮人의 啓蒙的인 차원으로서는 운영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은 당시의 圖書館 數를 증가시키는데 크게 공헌을 했지만 이들 중 소수를 제외하고는 많은 수의 圖書館이 극히 濶細하였

다. 1932년 統計表上에 나타난 圖書館 總數는 52개관³¹⁾인데 그중 鄉校財產에 의해 설립되어 활동한 圖書館은 24개관으로 全體比率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반면에 鄉校에 의한 圖書館의 현황은 1932년에 활동하고 있는 전체 圖書館의 現況에 비해 藏書 5%, 豫算 4%, 利用者 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³²⁾ 鄉校財產에 의해 설립된 圖書館은 설립된 시설의 수적인 비율만큼 그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지속적으로 그 활동을 계속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들 圖書館이 당시의 정규교육시설의 부족과 外部의 資料에 쉽게 접할 수 없는 여건에서도 子女教育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一般人들에게 圖書館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教育機關이라는 점과 일제가 민족교육의 말살이라는 점에서 朝鮮人の 계몽적차원에서 圖書館活動을 같은 성격의 교화시설로 압도함으로써 민족운동을 저지하였다는 점에서는 그 영향력이 컸으리라고 생각되어진다.

Ⅲ. 鄉校財產에 의한 圖書館運營現況

1. 藏書現況

鄉校財產으로 設立된 48개관 중에서 藏書現況을 資料에 나타난 28개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이 된 도서관은 일제시 朝鮮總督府 統計資料에서 취급된 圖書館이란 점에서 비교적 그 활동이 활발하였던 圖書館들이며 여기에서 취급되지 않은 圖書館들은 시설은 있으나 그 활동을 확인할 수 없는 圖書館들로 영세한 조건에서 운영된 것들이라 하겠다.

31) 朝鮮總督府 編. 朝鮮總督府統計年報, 昭和7年(1932). pp. 711-712.

32) 權恩環……p. 101.

(表 4)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別藏書現況

圖書館名	年度	'22	'23	'26	'30	'31	'32	'34	'41
洪城簡易圖書館		150	350	336	336	336	336		
蔚山簡易圖書館		248	515	880	1,579	1,599	1,599		
東萊簡易圖書館			326	604	623		623		
咸安簡易圖書館			105	337	474		474		491
寧邊新聞圖書閱覽所					247		389		
博川新聞圖書閱覽所					156	156	274		
楚山新聞圖書閱覽所				63	109	109	182		
太川新聞圖書閱覽所				373	400	435	469		478
熙川新聞圖書閱覽所				93	148	179	184		
開城府立圖書館				4,707	6,495	7,059	7,487		9,738
慈城新聞圖書閱覽所				214	118	142	149		
潭陽郡圖書館						720	720		
鐵山新聞圖書閱覽所				98	143	175	181		359
義州新聞圖書閱覽所				400					
三陟簡易圖書館				816	1,181	1,193	1,197		
咸興圖書館				706	842				
密陽圖書館				861	1,117	1,119	1,119		1,157
谷城郡圖書館						580	585		599
厚昌新聞圖書閱覽所				195	382	401	424		
山淸圖書館				294	518	525	525		
南海簡易圖書館						494	494		572
固城簡易圖書館						245	245		
公州圖書館						1,049	1,051		1,051
慶山圖書館						522	531		
讓陽圖書館						248		334	
安城圖書館							153		
梁山簡易圖書館							125		
宣川會館圖書									3,725

〈表 4〉에 나타난 28개 圖書館의 藏書現況을 중심으로 이를 分析해 보면 1922년 設立을 시작하여 매년 많은 圖書館이 증가하였으나, 몇 개의 圖書館은 그후 없어지기도 하였다. 일제시 조선에서 통계표상 가장 많은 圖書館이 活動한 時期는 1931년과 1932년으로 이 기간동안에 全體 52개관³³⁾이 全國에서 活動하고 있었는데, 이중 48.1%에 속하는 25개의 鄉校에 의한 圖書館이 活動하고 있었다는 것은 鄉校財産이 圖書館活動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941년에는 이들 중 資料에 나타난 것은 겨우 9개관으로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거나 유명무실한 시설로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향교재산에 의한 도서관활동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정치시기 일반인을 위한 사회교육활동을 정책으로 채택한 초기의 일시적인 활동이었다.

〈表 4〉에 나타난 1932년도 藏書現況을 分析하면 100-200권 6개관, 201-400권 4개관, 401-500권 4개관, 501-700권 4개관, 701-1000권 1개관, 1000권 이상 5개관으로 201-400권 사이가 6개관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500권 미만인 14개관으로 58.3%나 차지하는가 하면 1,000권을 넘는 圖書館은 5개관으로 20.8%에 속하고, 이외의 79.2%에 속하는 19개관이 1,000권미만으로 資料를 통한 教育機能의 발휘에는 매우 영세하였다.

藏書의 수입에 있어서도 몇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 않았거나 연간 10권 미만으로 늘어난 圖書館이 절반을 상회하는 15개관이나 되고, 開城府立圖書館이 年間 400여권으로 제일 많고, 100권이상 증가한 圖書館은 3개관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藏書 現況만 보아도 당시 圖書館活動이 資料를 통한 教育的 기능보다는, 많은 圖書館 명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新聞圖書閱

33) 朝鮮總督府 編, 前掲書. 1932.

覽所로서 時代의 變化에 적응할 수 있는 定刊物의 閱覽을 통한 教化가 시설의 중요한 기능 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利用現況

利用 現況 分析은 일제시 이들 圖書館에 대한 住民들의 反應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鄉校財産을 利用한 圖書館의 設立이 地方 官吏인 郡守에 의해서 주도되었거나, 運營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이용에서는 地方民의 호응을 받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表 5)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利用者の 年度別對比(1日平均)

圖 書 館 名 \ 年 度	'22	'23	'26	'30	'31	'32	'34	'41
洪城簡易圖書館(공)	1.8	2.0	2.3	1.0	1.2	0.8		
蔚山簡易圖書館(사)	5.7	13.9	12.8	8.2	8.4	16.3		
東萊簡易圖書館(사)		13.9	9.3					
咸安簡易圖書館(사)		2.0	3.8	4.3	4.0	0.9		0.1
寧邊新聞圖書閱覽所(공)				2.0	1.1	3.2		
博川新聞圖書閱覽所(공)				6.6	7.6	6.0		
楚山新聞圖書閱覽所(공)			1.0	1.0	1.3	1.7		
泰山新聞圖書閱覽所(공)			0.6	7.8	6.1	5.9		
熙川新聞圖書閱覽所(공)			8.1	6.5	4.2	3.2		
開城圖書館(공)			20.6	11.7	1.9	72.0		102.6
慈城新聞圖書閱覽所(공)			3.0	2.5	2.4	1.4		
潭陽郡圖書館(사)						8.0		
鐵山新聞圖書閱覽所(공)			3.0	9.0	11.9	11.3		6.0
義州新聞圖書閱覽所(공)			4.6					
三陟簡易圖書館(공)			8.5	11.8	3.7	3.7		
咸興圖書館(공)			8.1					
密陽圖書館(공)			8.9					
谷城圖書閱覽所(사)					5.0	5.0		

圖書館名 \ 年度	'22	'23	'26	'30	'31	'32	'34	'41
厚昌圖書閱覽所(공)			3.2	3.5	5.2	6.0		
山淸圖書館(공)			9.4	11.6	15.7	15.8		
南海簡易圖書館(공)					0.6	0.5		1.5
固城簡易圖書館(사)					4.3			
公州圖書館(공)					1.8			119.6
慶山圖書館(사)					5.0	2.5		
讓陽圖書館(공)					3.2			
安城圖書館(공)						2.6		
梁山簡易圖書館(사)						2.0		
宣川會館圖書閱覽所(사)								35.8

* 一日平均利用者は(利用者: 開館日)로 하였음.

(表 5)에서 나타난 28개 圖書館을 中心으로 分析하면 1일 平均 1인미만 이 2개관, 1-5인 13개관, 6-10인 8개관, 16-20인 2개관, 70-80인 1개 관, 100인이상 2개관으로 82%에 속하는 23개관이 10인이하의 利用率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들 圖書館들은 設立 초기에 비해서 4개관을 除外한 24개관이 利用率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設立 당시의 教育施設로서의 機能을 維持할 수도 없는 實情이다. 또한 進술한 바와 같이 성장하지 않은 圖書館에 閱覽者의 利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開城圖書館이나 公州圖書館에 利用率이 계속 늘어난 것은 이들 圖書館의 藏書確保率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다. 1日平均 10인이하의 利用率을 가진 23개 圖書館은 事實상 施設面이나 藏書確保에서 미진할 뿐 아니라 設立 당시 一般人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運營의 問題도 있다. 그리고 郡守 등 地方官吏가 教化機關의 設立이라는 業績의 일환으로 展示의인 效果와 조선인의 계몽을 위한 도서관의 設立을 지지한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運營에는 소홀하였다는 데도 그 原因이 있다고 하겠다.

3. 豫算現況

圖書館이 본연의 教育的인 機能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豫算의 확보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日帝期間 동안 圖書館活動은 全國的으로 많은 곳에서 전개되었으나, 設立을 위한 財政確保에서 부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設立된 이후 財政難으로 운영이 되지 못한 圖書館들도 많았다. 日帝는 郷校財産을 官廳으로 移管하여 관리하면서 이 財産을 利用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比較的 쉽게 재정을 確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치된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지속하는 데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운영에 대한 재정난으로 많은 도서관이 그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다. <表 6>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예산 상황은 향교재산에 의한 48개 도서관 중 문헌에서 확인된 25개관을 대상으로 했다.

(表 6) 郷校財産에 의한 圖書館別豫算狀況

圖書館名 \ 年度	'22	'23	'26	'30	'31	'32	'34	'41
洪城簡易圖書館	475	350						
蔚山簡易圖書館	1,375	1,500	1,000	162	165	165		
東萊簡易圖書館		902	770					
咸安簡易圖書館		800	601	177	190	35		
寧邊新聞圖書閱覽所				250	169	230		
博川新聞圖書閱覽所				318	100	250		
楚山新聞圖書閱覽所			282	150	117	100		
泰川新聞圖書閱覽所			150	93	96			26
熙川新聞圖書閱覽所			160		30	30		
開城圖書館			4,000	1,208	1,250	3,800		4,445
慈城新聞圖書閱覽所			80	19	25	85		
鐵山新聞圖書閱覽所			178	158	200	118		100

圖書館名 \ 年度	'22	'23	'26	'30	'31	'32	'34	'41
義州新聞圖書閱覽所			590					
三陟簡易圖書館			951	788	370	228	6,163	
咸興圖書館			216	224				
密陽圖書館			612	81	15	20		
厚昌新聞圖書閱覽所				124	95	120		
山清圖書館			534	588	504	486	3,000	
南海簡易圖書館					80			199
固城簡易圖書館				100				
公州圖書館				7				
慶山圖書館				590	590			
讓陽圖書館				468				
陽山簡易圖書館					382			
宣川圖書閱覽所								

〈表 6〉에서 나타난 鄉校財産으로 설립된 25개의 圖書館豫算은 연간 30 円미만 3개관, 31-100円 6개관, 101-200円 2개관, 201-500円 8개관, 501-1,000円 3개관, 1,000円이상 3개관으로 分布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500円이상으로 豫算을 확보한 圖書館이 6개관인데, 그 중 3개관만이 1,000円이상의 豫算으로 運營되고 있다. 그리고 100円미만에 속하는 圖書館이 9개관으로 25개관 중 36%를 차지하고, 이를 더 확대해서 鄉校에서 설립한 48개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면 100円이상의 豫算을 확보한 圖書館은 16개관으로 36%에 불과하고, 이외 64%에 속하는 29개관이 年間 100 円도 못되는 豫算으로 運營되고 있어 全國적으로 설립된 향교재산에 의한 圖書館數는 많지만 대부분이 영세하였다. 그러나 豫算과 施設은 영세하였지만 日帝가 鄉校財産을 이용하여 圖書館을 설립하는 데는 그 異面에 朝鮮人의 圖書館 설립을 저지하는데 더 큰 目的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圖書館活動으로 인해 朝鮮人의 圖書館活動이 많은 地域에서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사실상 영세한 教化施設이지만 日帝의 目的 달성에 일부는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表 6>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特徵은 開城圖書館, 公州圖書館을 제외한 모든 圖書館이 한결같이 설립초기에 비해 每年 豫算이 節減되었다는 것이다. 1922년부터 1941년까지 사이에 가장 많은 圖書館의 活動을 보인 것은 1932년인데 이때에도 한두개의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鄉校에 의한 圖書館의 豫算이 削減되어 어떤 것은 施設自體의 維持도 어려운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現狀은 文化政治初期에 社會教育政策의 일환으로 鄉校財産을 利用한 設立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설립 그 자체에 목적을 두었고 운영에서는 소기한 목적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차차 豫算의 削減이 있어왔고, 豫算의 부족으로, 일반인에 기대되는 圖書館으로 發展할 수 없어 一般住民으로 부터 疎外당하게 됨으로써 自然的으로 圖書館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活動은 財政的인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때문에 鄉校財産의 管理者인 郡守들에 의해서 日本人이 바라는 教化施設費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들 鄉校에 의한 圖書館들은 몇개의 獨立建物を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既存施設物을 利用하였는데, 學校施設, 郡行政施設, 鄉校施設 등을 利用한 것이 그 대부분이고 마을에서는 가정집을 이용하기도 하였다.³⁴⁾ 그래서 資料를 確保할 수 있는 豫算만으로 비교적 쉽게 圖書館을 설치할 수 있었고, 당시의 政策을 이해시키기 위한 資料로써 日刊新聞과 雜誌 등을 많이 이용하였다.

日帝는 教育施設을 설립한다는 名目으로 教化施設을 위한 財政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고, 또한 儒林의 財産으로 教育機關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日帝에 완곡하게 저항하였던 儒林들의 協力을 쉽게 얻어낼 수 있

34) <表 1> 備考欄 參照

있으며, 地方有志들을 圖書館 設立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有志들의 재산과 자료에 대한 協力까지 얻을 수 있는 多目的的인 效果를 올릴 수 있었다.

다음 이들 향교재산으로 설치된 각각의 도서관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들 도서관이 교화에 미친 영향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

IV. 鄕校財産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別 活動現況

1. 蔚山簡易圖書館

蔚山簡易圖書館은 1922년 9월 29일 圖書館 설치에 관한 商議員會議를 열었다. 당시의 郡守 손영목은 영단을 내려 鄕校財産을 이용한 社會教化機關이며, 民衆文化施設로서 최적절한 기관이 圖書館임을 인식하고 同年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郡立 圖書館을 계획하였으나³⁵⁾ 뜻대로 되지 못하였다. 이 일을 추진하던 중 1923년 同地 普通學校長 日本人 木阪直一의 적극적인 활약과 地方有志의 동정하에서 普通學校所屬의 太和樓上에 1923년 12월 12일에 圖書館을 개관하게 되었다.³⁶⁾

“9월 29일 울산공립보통학교에서 도서관설치에 대한 상의원회의를 개하고 규정 통과급 예산토의 기타 도서종류등에 취하여 의정한 결과 12월 1일부터 개시하도록 하는데 차에 요하는 비용은 향교재산 천원으로 위선충용하며 건물은 보통학교소속 태화루계상에 설치하기로 되었다는 바 대개 향교재산의 지출이 현대문화시설 배타하는 소극적방향으로 경주함이 사실이 어날 본군에 재하여는 특히 군수 손영목씨의 영단으로 만위를 배하고 차를 이용하여 사회교화기관으로 민중문화시설의 최적절한 군립도서관을 계획함은 실로 타지방인사의 흠복하는 바이니라”³⁷⁾

35) 東亞日報 1922.10.12. 4면.

36) 朝鮮日報 1923. 2.20. 4면.

37) 東亞日報 1922. 10.12. 4면.

이 圖書館은 教化를 위한 시설로 定規教育機關인 普通學校 시설을 이용하여 開館한 社會教育機關으로 活動하였다. 이렇게 일제는 기존의 교육시설을 사회교육의 장으로 개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교화에 대처함으로써 일반인의 교화를 위한 식민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었다.

“경상남도 울산은 종래 문화기관이 결핍됨을 개탄불기 하던 바 동지 보통학교장 木阪直一씨는 동교에 부임한 지 불과 기월에 일반사회에 공헌코자 태화루상에 도서관을 설치하고 학부모와 당지 청년의 수양상 과학연구상에 충분하기를 열망하여야 해 교장은 열심으로 도서를 준비하여 본월 12일부터 개관하고……”³⁸⁾

蔚山簡易圖書館의 활동 상황은 閱覽人員의 증가로 개관한 지 한달만인 1923년3월에 施設擴張의 불가피함을 말할³⁹⁾ 정도로 활발하였다. 蔚山靑年會는 後援機關으로서 이의 擴張을 위해 當地의 有志들에게 원조를 청하여 篤志家로 부터 金錢과 資料의 기부가 답지 하였다고 한다. 教化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서관이기는 하나 일반인을 위한 教育施設이라는 점에서 靑年團體나 一般有志의 관심이 컸던 것이다.

“……울산도서관은 점차 종람인원의 증가를 따라 금반 좌기와 여히 독지가의 기부가 유한데 위선 관사를 수리하는 동시에 도서도 다수히 비치할 계획인 바 울산청년회는 그 후원기관으로서 유지가의 원조를 청하여야 기 계획을 발전코자 한다더라.

金佐性 金千円 金弘洙 金二拾円 金相鳳 五円 徐相煥 周易一摺 李樹煥 中庸一摺 鄭在順 大學一摺”⁴⁰⁾

38) 朝鮮日報 1923. 2.29. 4면.

39) 東亞日報 1923.3.21. 4면.

40) 東亞日報. 1923. 3.21. 4면.

日帝는 定規學校施設에 圖書館을 설치하고 地域의 일반인과 青年들의 教化센터로 운영하면서 青年團體를 그 後援機關으로 끌어들이 이들이 앞장을 서서 教化에 출선하게 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地域의 篤志家들이 教化事業에 참여케 함으로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目的 達成을 위한 教育機關으로 圖書館을 심분 활용하였다.

〈表 7〉 蔚山簡易圖書館의 資料 및 閱覽現況

年 度	和漢書	洋 書	開館日數	閱覽人員	一日平均	豫 算
1923	514	1	324	4,514	13.9	1,500
1926	878	2	331	4,237	12.8	1,000
1930	1,579	0	217	1,780	8.2	162
1931	1,599	0	215	1,799	8.4	165
1932	1,599	0	236	3,844	16.3	165

資料：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3—1933. 참조

〈表 7〉에서 보는 바와같이 地域의 私立 公共圖書館으로서는 비교적 그 활동이 활발한 시설중의 하나이다. 1923년 開館 當時 1,500원의 많은 豫算을 확보하였으나 해가 거듭 할수록 떨어져서 1930년부터는 162원으로 11%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藏書는 이와는 반대로 1923년 514책에서 1930년 1,579책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고, 閱覽人員의 경우는 1923년과 1924년에는 每日平均 13.9인과 12.8인 이었으나 1930년과 1931년에는 每日平均 8.2인, 8.4인으로 떨어졌다가 1932년에는 다시 16.3인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現狀은 設立 당시 일반인이 기대하였던 教育施設로서의 機能을 다하였으나 해가 거듭함에 따라 設立者의 관심이 적어지고, 財政難에 의한 타격 등으로 閱覽者가 줄어든 결과라고 하겠다. 圖書館은 施設中心 社會教育機關이기 때문에 施設 자체 기능의 충실도에 따라 利用者의 반응

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原因은 開館日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운영에 대한 設立자의 관심도와 직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私設圖書館이 대부분 그러했듯이 設立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보였으나 設立된 圖書館에 대한 財政 지원에 대한 계속성이 없어 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蔚山簡易圖書館은 日帝의 教化를 목적으로 設立되었기 때문에 日帝가 모든 施設에서 그러했듯이 教化施設로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運營에 소홀해 지고 財政的인 지원을 줄임에 따라 圖書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1930년이후 부터 資料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蔚山簡易圖書館은 朝鮮人 郡守와 日本人 學校長에 의해 設立되고 또한 鄉校財産에 의해 운영된 教化施設이기는 하나 이 圖書館의 設立과 運營에 地方의 青年團體, 有志 등이 참여한 地域住民의 관심으로 보아 이 地域의 教化에 미친 影響은 컸으리라 사료된다.

2. 開城圖書館

開城圖書館은 鄉校財産에 의해 設立된 圖書館으로 공립으로 발전한 대표되는 圖書館이다. 開城圖書館은 이 지역의 주민을 教化하기 위한 公共施設로 民族教育을 위한 財政인 鄉校財産을 활용하여 日帝의 政策事業에 投資한 例이다. 開城圖書館은 1924년4월 鄉校財産을 이용하여 市街의 중심지인 南大門樓上에 당시 開城郡守에 의해 設立이 계획되어,⁴¹⁾ 1924년11월 '일 開館式을 거행하여⁴²⁾ 2일부터 閱覽事務를 개시한 공공도서관이다.⁴³⁾

당시 기사에 나타난 設立취지를 보면

41) 時代日報 1924.4.19. 4면.

42) 東亞日報 1924.11.3. 5면.

43) 朝鮮之圖書館, 제3권2호(1933년5월). p. 25

“五万市民의 住居하는 開城에 一個圖書館이 無함을 一般市民은 遺憾히 여기든마 今般開城郡에서는 鄉校財産을 社會敎化事業으로 六千六百餘円을 投하여 元憲兵隊跡에 去二日부터 開館하였는데……”⁴⁴⁾

설립에 투입된 鄉校財産은 6,600여円⁴⁵⁾이다. 이는 1925년 鄉校財産의 총수입 11,075원⁴⁶⁾인데 비하면 鄉校收入의 절반이상을 敎化事業에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고, 開城圖書館의 鄉校財産에 의한 경영의 의존도는 1940년1월 圖書館의 경영권이 鄉校에서 開城府로 완전히 이관된⁴⁷⁾ 이후에도 내내 계속되었다.⁴⁸⁾ 이와같이 敎化事業을 위한 鄉校財産의 활용은 전국적으로 鄉校에 의해 설립된 圖書館의 活動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설립된 開城圖書館은 1927년3월 총81명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⁴⁹⁾ 1931년11월9일 上梁式을 거행하고,⁵⁰⁾ 1932년6월1일 신축개관을 보게 되었다.⁵¹⁾ 총공사비는 21,000원으로 2층 연와조로 하층은 圖書館으로 사용하고, 2층은 4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集會場인 社會館으로 활용되게 하므로⁵²⁾ 도서관을 종합적인 사회교육의 중심 시설로 설립하였다.

開城圖書館의 施設과 活動狀況을 보면

開城圖書館의 活動狀況은 1924년 개관당시 2,191책의 藏書로 시작하였으나 매년 장서를 확보하여 1932년 4배에 가까운 7,489책으로 늘어 났으며, 1941년에는 9,775책으로 1만권에 육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市民의 敎化에 힘을 썼다. 이와같은 圖書館의 확장은 1932년까지 직원 3명(관장

44) 朝鮮日報 1924.11.4. 3면

45) 朝鮮日報 1924.11.4. 3면.

46) 東亞日報 1925.6.3. 3면.

47) 매일신보 1940.1.21. 3면

48) 文獻報國 제6권제5호(1940년5월). p. 12.

49) 동아일보 1927.3.9. 4면.

50) 매일신보 1931.11.12. 3면

51) 매일신보 1932.5.31. 7면.

52) 東亞日報 1932.6.3. 7면.

〈表 8〉 開城圖書館의 施設과 活動狀況

年 度	豫 算	藏 書	館 員	利 用 者	備 考
1924		2,191			
1926	4,000	4,707		5,839	
1930	1,208	6,495	3	3,418	
1932	4,324	7,489	6	17,490	
1933				19,519	
1934				19,654	
1940		8,541			
1941	4,445	9,775		29,638	

資料：朝鮮中央日報, 1934. 4. 21. 5면
 文獻報國. 6권5호. p. 11.
 朝鮮年鑑. 1940. p. 637,
 朝鮮之圖書館. 제3권2호(1933.5). p. 25.

포함)이 운영하던 것을 새로운 圖書館으로 신축 개관함에 따라 6명으로 배가하여 운영하였다. 利用者의 경우는 개관당시 많은 호응을 얻어 閱覽者가 세도하기는 하였으나 시설관계로 1930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였고, 1932년 普通閱覽室, 新聞閱覽室, 婦人室, 兒童室 등 시설의 확장과 더불어⁵³⁾ 17,490명으로 늘어났으며, 1941년에는 29,638명으로 배가 되는 활동을 보였다. 그리고 1933년 11월 1일부터는 館外貸出을 개시하여⁵⁴⁾ 資料의 利用 폭을 넓힘으로써 자료를 통한 敎化의 範圍를 확대하여 나갔다.

日帝는 圖書館의 장서확보 뿐 아니라 閱覽施設을 男子閱覽室, 女子閱覽室, 兒童閱覽室, 新聞閱覽室 등⁵⁵⁾으로 확장하여 주민 스스로 敎化에 동참케 하고, 集會의 場인 社會館을 설치하여 강연회, 영사회, 음악회, 강습회⁵⁶⁾

53) 朝鮮之圖書館 제3권2호(1933.5). p. 25.

54) 東亞日報 1933.9.30. 2면.

55) 東亞日報 1927.3.9. 4면.

56) 朝鮮之圖書館 제3권2호(1933년5월). p. 25.

등의 각종 집회활동을 주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市民敎化를 기하였다. 이렇게 日帝는 圖書館을 圖書를 통한 敎化의 場으로 뿐만 아니라 敎化의 中心센터로서 圖書館 施設을 심분 활용하였다.

3. 咸興圖書館

咸興圖書館은 1921년 10월 咸興郡內 儒林을 중심으로 한 有志諸씨의 발의로 圖書館 創立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⁵⁷⁾ 진행하던 중 1923년 朝鮮敎育會가 창설되고 支會로 咸南敎育會가 설립됨에 따라 同會 사업으로 1925년 6월 敎育會所藏의 圖書를 物產陳列館 2층 방 한칸에 비치하여 공중의 열람에 공하는 것이 그 시작 이었다.⁵⁸⁾ 그러나 경비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일시 폐관되었다가 1930년 관리를 鄕校財産에 이관하여 鄕校里孔子廟明倫堂을 수리하고 同年 7월 25일에 개관⁵⁹⁾을 보아 다시 일반에 열람을 개시하였다. 그러다가 同年 10월 1일부터는 관리권이 咸興府로 이관⁶⁰⁾되어 현시설을 확장개관할 수 있게 되었고⁶¹⁾ 1936년에는 咸興의 舊道聽舍로 이전 확장하기로 하였으나⁶²⁾ 뜻을 이루지 못하고 1939년 前警察部長官舍를 개조하여 종래보다는 3배에 가까운 열람시설을 확보하고 同年 12월 23일 확장개관을 보게 되었다.⁶³⁾

이렇게 咸興圖書館은 儒林에 의해 발의되어 行政機關인 敎育會와 咸興府가 공동으로 설립한 圖書館으로 儒林과 행정당국이 가장 밀착되어 운영한 社會敎育施設이다. 日帝는 咸興圖書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영을 위한 財政難의 타개와 閱覽施設의 확장을 위해 관리부서를 편리한 대로 바

57) 東亞日報, 1921.10.26. 4면.

58) 朝鮮日報, 1930.10.7. 7면.

59) 朝鮮之圖書館, 제4권제2호(1934년 7월), p. 39.

60) 朝鮮日報, 1930.10.14. 6면.

61) 朝鮮日報, 1930.11.2. 6면.

62) 每日申報, 1936.10.12. 4면.

63) 東亞日報, 1939.12.24. 8면.

꾸어 가면서, 또한 鄉校의 시설과 행정관서의 관리시설을 그 확장에 사용하면서 敎化의 범위를 확대하여 식민지정책을 수행하였다.

咸興圖書館의 활동에 대한 현황을 보면

〈表 9〉 咸興圖書館의 施設과 活動狀況

年 度	和漢書	洋 書	計	開館日	閱覽人員	一日平均	豫 算
1926	688	18	706	260	2,102	81	216
1930	832	10	842			224	
1931			1,682	289	29,719	103	
1933				283	31,684	112	
1934			1,990				
1941	3,612		3,612	285	30,120	106	2,843

資料：朝鮮之圖書館，第4卷第2號(昭和9年7月). p. 39.

朝鮮之圖書館，第3卷第2號(昭和8年5月). p. 27.

〈表 9〉에 의하면 1926년 706책으로 설립초기에는 미비한 자료로 시작하였으나, 1941년에는 이의 5.1배가 상회하는 3,612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 豫算面에서도 1926년 216円에서 1941년에는 2,843円으로 16년동안에 무려 13.2배나 증가하고 있어 日帝가 의도적으로 敎化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施設과 豫算의 확장에 못지 않게 이용에도 상당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1926년에는 開館日數 260일로 閱覽人員 一日平均 81명에 불과하였으나 1930년대 이후부터는 개관일수 280일 이상으로 연장되면서 一日平均 利用者도 많을 때는 224명까지 육박하는 이용율을 보였다. 그리고 1931년 1년동안에 利用者를 日本人과 朝鮮人으로 나누어 나타낸 結果를 보면 總閱覽者 29,719人中 日本人 2,936명으로 당시 咸興에 거주하는 日人總數 6,634人⁶⁴⁾중 44.3%에 해당되는 人員이 圖書館을 利用한데 비해 朝鮮人은 利用자가 이의 4배를 상회하는 26,

64) 朝鮮之圖書館. 제3권제2호(1933년5월). p. 27.

783인으로 당시 咸興의 朝鮮人 總數 33,408인⁶⁵⁾ 중 80.2%가 圖書館을 利用한 것으로 日人의 利用을 압도하는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咸興圖書館은 日帝가 圖書館을 教化施設로 이용한 가장 성공적인 例의 하나로 日本人보다도 더 많은 비율의 朝鮮人을 日本語로 된 資料에 의존하여 教化되게 하였고, 朝鮮人 스스로가 教化에 동참한 日本化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시설이다.

V. 結 論

日帝植民地政策에서 民族教育財産으로 운영된 鄉校財産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참으로 지대한 것이었다. 이 중에서도 圖書館과는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근대적 의미의 公共圖書館發展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일제는 1910년 강점에 의한 함방을 유지키 위해 武力政治를 펼쳐 나가다가 1919년 3.1운동의 민족적 저항으로 文化政治라는 朝鮮人에 대한 회유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民族啓蒙과 獨立精神을 고취시키기 위한 救國活動이 篤志家, 有志, 宗教團體, 青年團體 등이 주축이 되어 활발히 전개되었고, 이들 단체의 활동 중에서도 民族啓蒙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教育的 機能의 강화를 위한 圖書館活動이 중요한 教育施設로 대두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圖書館을 통한 社會教育運動이 우후죽순처럼 일기 시작하여 한동안에는 日帝 植民政策에 타격을 주었다.

한편 日帝는 文化政治로 政策을 전환하면서 정규교육에 못지 않게 朝鮮人의 植民化에 중요한 것이 일반인을 위한 社會教育임을 인식하고, 전국

65) 上揭書.

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鄉校財産을 教化에 활용할 수 있는 鄉校財産 管理 規定을 개정하고,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設立運動을 전개하여 이를 教化 시설로 활용하게 하였다. 日帝는 鄉校財産을 教化施設에 사용케 함으로 鄉校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지역의 儒林과 有志를 教化에 끌어 들임으로써 당시 일고 있었던 救國次元의 각종 社會教育活動과 朝鮮人의 圖書館活動을 저지할 수 있었다.

日帝는 朝鮮人의 民族教育資本인 鄉校財産을 教化에만 사용하게 함으로 圖書館設置에 필요한 財政과 施設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도 教化施設을 쉽게 확장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日帝時 公共圖書館活動의 施設의 숫적인 면에서는 전체의 20.4%에 해당하는 同一 財産으로는 가장 많은 설치율을 나타내고 숫적인 면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이 끼친 영향은 (1) 儒林과 地域有志를 教化에 끌어 들임으로써 당시 全國에 일고 있었던 朝鮮人의 救國次元의 教育活動을 저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고, (2) 이들 圖書館施設을 통해 日帝의 정규 교육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農漁村 지역에 까지 教化活動을 전개할 수 있는 社會教育의 거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3) 비록 많은 施設들이 閉官되기는 하였지만 상당수의 圖書館이 公立과 연계되어 韓國 近代圖書館의 전신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는 鄉校財産에 의한 圖書館의 영향을 가히 짐작케 한다.

參考文獻은 脚註로 代身함.

A Study on the Property of Hyanggyo and Public Libraries under the Colony of Japanese Empire

Kim, Nam-Seuk*

(Abstract)

Under the colony of Japanese Empire, libraries of Hyanggyo's(a Confucian temple and a old-time School belonging to it) property appeared 45 libraries.

Effects of these libraries are as follows :

1. Libraries of Hyanggyo's property impeded Korean people's enlightenment works in the aspect of a save the Nation movement spread all over the country by taking in Confucian scholars and those who work for the good of the locality.
2. It having prepared a point to civilize Koreans for Japanizing as far as rural and fishing community through libraries of Hyanggyo's property.
3. Though many libraries of Hyanggyo's property were closed, a quite libraries became the predecessor of Korea modern library which linked with public libraries.

*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Keimyung University